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2009.12, pp.65~77

# 기형도 시 연구

—자가치료적 특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Gi Hyeong Do's Poetry

김지훈(국제대 강사)

### 차례

1.서론	쓰기
2.본론	3) 폐쇄된 공간과 유패로부터의 탈출
1) 문학 담론과 자가 치료	3.결론
2) 유년의 상처 치유를 위한 자기 성찰의 글	

## 1. 서론

지금까지 기형도 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유년의 상처와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기형도 시편의 죽음에 대한 논의는 시적 형상화와 더불어 심도 있게 고찰되었다. 그런 만큼 기형도 시에 대한 논의의 틀은 어느 정도 한정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그의 시편에 표현된 상처와 죽음이 가리키는 공간을 분석하는 데는 소홀했다. 다시 말해, 문학작품에 나타난 공간<sup>1)</sup>은 존재의 정체성을 찾는 기본적인 단서다. 흔히 패쇄적 공간으로 대변되는 기형도 시의 공간은 부재중의 자아, 죽음의 죽음 등 강한 역설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자가치료적 기능이 작용되고 있는 좋은 예다. 특히 잊어버리고 싶다가

1) 문학공간에 대한 연구는 ①텍스트의 공간으로서의 문학공간, ②작가의 글쓰기에 부여된 경험공간, ③문학작품이 생산되거나 작품 내에 그려진 지리적 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수복 편저, 『한국문학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pp.12~13.

## 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나 피하고 싶은 심리기제를 넘어, 현실을 직면하는 능력과 쓴다는 행위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시치료<sup>2)</sup>의 자가치료적 의미를 지닌다. MBSR 프로그램을 개발한 카밧진은 “주의 깊게 보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전체성(whole)을 자각하게 되며,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치유의 길”<sup>3)</sup>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형도 시에 나타난 유년시절의 상처와 죽음, 폐쇄적 공간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림자<sup>4)</sup>다. 무의식의 심층, 어두운 공간인 그림자에 대해 프로이트가 거세이론<sup>5)</sup>을 내세운 반면, 융은 그림자를 일생동안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한 평생 보다듬고 자각시켜야할 공간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형도 시편에서 직시하고 있는 유년시절의 상처와 죽음, 폐쇄적 공간이 부정의 차원을 넘어서기 위한 시 쓰기 과정 즉, 텍스트의 자가치료적 특성을 밝히는 데 있다.

## 2.본론

### 1) 문학 담론과 자가 치료

기형도의 시에 드러나는 특징이 죽음과 관련된 비극성에 있음을 부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미래의 시간 속에 존재하므로 죽음을 사유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식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래 의식은 기형도 시에서 죽음의 상징으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직시를 통한 글쓰기 행위’다. 그의 시는 서로의 세계(삶과 죽음)를 반영한

2) 시치료는 시를 활용한 대체의학으로서 정서장애 등의 정신치료를 위한 과정이다. 즉, 시치료는 예방과 치료의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약물이나 기타 의학 장비에 의존한 기존의 치료방법과는 달리 심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시를 적극 활용하여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지훈, 「정호승 시의 심리치료 활용 분석」,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7, p.8.

3) 박미라, 『치유하는 글쓰기』, 한겨레출판, 2008, p.62.

4) 일차적으로 개인적 무의식에 억압된, 앞으로 의식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열등한 인격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그 가장 밑바닥 단계는 동물의 충동성과 더 이상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2006, p.85.

5) 프로이트의 정신적 결정론의 하나.

다. 때문에 낮설지만 때로 낮익은 즉, 역설적인 풍경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김현<sup>6)</sup>은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러한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 주는 일차적 정서<sup>7)</sup>는 공포, 놀람, 경멸, 고통, 수치심 등으로 기쁨이나 즐거움과는 거리가 있다. 기형도 시의 자가치료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 여성적(아니마) 어조, 둘째, 남성적(공격적, 지배적) 사유가 그것이다. 어조 즉, 목소리는 시인의 개성이며 독자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시의 외적 형식이다. 사유는 시인의 세계관을 반영하며 시의 주제와 밀접한 내적 형식이다. 그러니까, 그의 시는 내·외적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격과 방어, 직관과 감각, 직시와 외면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서가 곧 그로테스크한 상황을 연출하며, 독자들은 불안한 가운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기괴한 경험을 하게 된다. 또, 시인 자신은 이러한 개성화(Individuation)를 통해 전체 정신을 갈망한다. 이것은 자기실현을 위한 자가치료적 시 쓰기의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유년의 상처 치유를 위한 자기 성찰의 글쓰기

그 해 늦봄 아버지는 유리병 속에서 알약이 쏟아지듯 힘없이 쓰러지셨다. 여름 내 내 그는 죽만 먹었다. 올해엔 김장을 조금 덜 해도 되겠구나. 어머니는 남쪽불 아래에서 수건을 쓰시면서 말했다. 이젠 그 애긴 그만하세요 어머니. 쌓아둔 이불에 등을 기댄 채 큰 누이가 소리질렀다. 그런데 올해에는 무들마다 웬 바람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중략) 선생님, 가정방문은 가지 마세요. 저희 집은 너무 멀어요. 그래도 너는 반장인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요. (중략)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보면 무엇하겠느냐. 목은 발에서 작년에 캐다 만 감자 몇 알 줄는 격이지. 그것도 대개는 썩어 있단다. 아버지는 삽질을 멈추고 채마밭 속에 발목을 묻은 채 짧은 담배를 태셨다. 올해는 무엇을 심으시겠어요? 뿌리가 질기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심을 작정이다. 하늘에는 벌써 튀밥 같은 별들이 떴다. 어머니가 그만 씻으시래요. 다음날 무엇을 보여

6) 김현, 『영원히 닫힌 빈방의 체험』, 『입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7) 위의 책, p.46.

## 4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주려고 나팔꽃들은 저렇게 오프라들어 잠을 잘까. 아버지는 흙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다. 봐라. 나는 이렇게 쉽게 뽐혀지는구나. 그러나 아버지. 더 좋은 땅에 당신을 옮겨 심으시려고. (중략) 보세요 어머니. 제일 긴 밤 뒤에 비로소 찾아오는 우리들의 환한 家系를. 봐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저 冬至의 불빛 불빛 불빛.

-「위험한 家系 · 1969」 부분

「위험한 家系 · 1969」는 자기서사와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자기서사에 대해 강서영<sup>8)</sup>은 “문학치료의 핵심적 개념은 자기서사(自己敍事)와 작품서사(作品敍事)이며, 작품서사를 통하여 자기서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문학치료의 핵심 구도”라고 말한다. 이 작품의 서사 속에서 시적 화자와 가족이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가 모두 낫는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시적화자의 말처럼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병든 가계는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있다. 그것은 부권사회에서 가계의 중심인 아버지라는 존재의 무능력함과 직결된다. 또, 대화는 작품 안에서 일반적인 서사보다 복합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 수많은 수사학적 기법들은 바로 이러한 대화의 전략에 효과적이다. 복합적인 관계의 대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사적 표현은 아마 아이러니일 것이다. 아이러니는 반어법(反語法)의 전형적인 형식으로서, 겉으로 표현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경우 대화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표현방식이 달라진다. 이 작품에서 대화의 대상은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한 家系 속의 인물들이다. 그 중심에는 시적 화자가 있다. 그런데 유독 대화의 대상이 ‘아버지’인 경우 소통의 단절 혹은 불일치의 경험<sup>9)</sup>을 하게 된다. 이것은 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서로 대변 할 수 있다. 이 시에 드러난 대화는 일상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러한 수사적 표현, 즉 반어가 사용될 경우 일상어는 일차적 의미 외에 복합적인 의미와 의도를 가지게 된다. 또, 이러한 의미와 의도는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아버지는 유리병 속에서 알약이 쏟아지듯 힘없이 쓰러지셨다/아버지는 흙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다. 봐라.

8) 강서영, 『소설창작과 문학치료』, 문학과치료, 2008, p.37. 참조.

9) 이러한 맥락으로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하나로 남근사상을 주장한 바 있다.

나는 이렇게 쉽게 뽑혀지는구나. 그러나 아버지. 더 좋은 땅에 당신을 옮겨 심으시려고/”에서처럼, 꽃모종을 하는 아버지(원관념)라는 대상을 꽃모종의 대상(보조관념)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것은 병으로 죽음에 가까워진 아버지를 통해 시인의 체험을 통한 세계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쉽게 뽑혀지는구나’라는 아버지의 말 뒤에 “그러나 아버지, 더 좋은 땅에 당신을 옮겨 심으시려고”라는 단언은 병으로 고생을 하는 삶의 공간보다는 차라리 죽음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갈망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공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힘이야말로 자가치료적 시 쓰기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내 유년 시절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누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아주시곤 하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애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자정 지나 앞마당에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처마 밑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사위어가는 호롱불 주위로 방안 가득  
 폴폴 수심 장 입김이 날리던 밤,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바람의 집(겨울 版畫1)」 전문

「바람의 집(겨울 版畫1)」도 자기서사와 대화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여기서 몇 가지 상징을 읽어낼 수 있다. 아버지는 부재중이다. 대화의 대상은 어머니와 시적화자 단 둘이다. 위험한 가게에서 보았던 ‘바람 든 무’가 여기서는 방안으로 들어와 있다. 어머니는 그것을 깎고 있으며 시적화자는 울음소리(바람 부는 소리)가 무섭다고 한다. “자정 지나 앞마당에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쓸어내렸다”와 같이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로 일관되는 이미지의 단순성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 공포 따위의 정서

## 6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어둠 속에서 바깥을 보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내면뿐이다. 그리고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의 행방을 묻고 있는 시적화자는 단절된 과거(무의식)를 의식 밖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서사의 단절을 직시하고 깨우침으로써, 지금-여기라는 시공간을 통해 자기실현의 한 부분을 경험하게 된다.

## 3) 폐쇄된 공간과 유폐로부터의 탈출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찢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빈 집」 전문

빈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 될 수 있다. 텅 빈 공간, 더 이상 의미를 찾아보긴 힘든 공간, 하지만 이러한 공간 속에 갇힌 ‘내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외부 공간의 상실은 내부 공간에서 존재감을 획득한다. 외부 공간의 객관적 상관물,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은 기형도 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안개의 상징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안개는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자신을 드러내는 만큼 다른 존재들을 지워버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소멸을 표지하기도 한다. 안개는 이러한 사라짐의 과정을 역으로 가시화하며

세계의 여백과 존재의 부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안개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라는 단언으로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가없는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라고 내부와 외부의 단절을 자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 “가없는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라는 부분은 해석함에 있어 ‘나’라는 주체가 자아인지, 타자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안과 밖의 이항 대립적 논리를 벗어나 근원적인 존재를 직시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이라는 본질 자체를 존재라는 하나의 실체로 봄으로써, 더 이상 시인에게 중요한 것은 소통과 단절, 희망과 절망이 아니다. 실체의 생성과 소멸의 경계에는 존재가 있다.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은 순간적인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사랑을 잃고 나는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간을 양면화시켜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탄식조의 “가없는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라는 어조는 안타까움, 아쉬움과 같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는 공간의 양면화를 통해 분리된 타자의 시선을 자기 내부의 시선으로 다시 한 번 전이시킴으로써 타자와의 간극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도 나는 기억하고 있네. (중략) 어둠은 언제든지 살아 있는 것들의 그림자만 골라 디디며 포도밭 목책으로 걸어왔고 나는 내 정신의 모두를 폐허로 만들면서 주인을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림이란 마치 용서와도 같아 언제나 육체를 지치게 하는 법. (중략) 때가 되면 태양도 스스로의 빛을 아껴두듯이 나 또한 내 지친 정신을 가을 속에서 동그랗게 보호하기 시작했더니 나와 죽음은 서로를 지배하는 각자의 꿈이 되었네. 그러나 나는 끝끝내 포도밭을 떠나지 못했다.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기척 없이 새끼줄을 들치고 들어선 한 사내의 두려운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를 주인이라 부를 때마다 아, 나는 황망히 고개 돌려 감감한 눈을 감았네.

-「포도밭 묘지 1」 부분

시적 자아는 ‘포도밭 목책’의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그의 시간은 ‘정

## 8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신의 모두를 폐허로 만들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일에 바쳐진다. 여기에서 그가 기다리는 주인은 포도밭(세계)의 주인이면서 내 정신(자아)의 주인이다. 따라서, 주인을 통해 그는 목적으로 둘러싸인 이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느 날 기척 없이 새끼줄을 들치고 들어선 한 사내'는 '내'가 바로 주인임을 말해준다. 사내는 포도밭의 '밖'에서 온 외적 세계의 타자이다. 그가 돌아온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은 자신이 '타자의 타자'라는 사실이며, '나와 죽음은 서로를 지배하는 각자의 꿈이 되고만 재구축된 공간, 현실인식이다. 이렇게 기형도의 시에서 발신자는 또 다른 자아, 즉 외부 세계의 타자는 내부 세계의 자아와 끊임없이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 사이를 오가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이는 공간성 확보를 통해 자아를 확신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눈은 퍼부었고 거리는 캄캄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은 눈을 뒤집어쓰고  
 회고 거대한 서류뭉치로 변해갔다  
 무슨 관공서였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유리창 너머 한 사내가 보였다  
 그 좁고 큰방에서 書記는 혼자 울고 있었다!  
 눈은 퍼부었고 내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묵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느라 나는 거의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중지시킬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창밖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지금 그를 떠올리게 되었다  
 밤은 깊고 텅 빈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퍼붓는다  
 나는 그 사내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할 만한 지나침」 전문



‘기억한다는 것’과 ‘지나친다는 것’은 서로 상반 된, 즉 반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시인이 ‘중지 시킬 수 없었’던 ‘울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면서, 사무실 안의 書記는 객관적 상관 물로써 ‘좁고 큰 방에서 혼자 울게’ 되는 ‘자아’의 모습이 된다. 관공서 건물의 방 안과 밖의 경계를 지우고, 이제는 기억할 만한 지나침이라는 반어가 주는 의미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억한다는 것과 지나친다는 것은 의미 자체부터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안에서 재구축되는 공간은 동일한 정서의 공간으로 형성된다. 이것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우연히도 사실은 필연적이라는 다른 표현, 즉 반어가 담긴 것이다. 이 작품의 특질 중에 하나가 반어이다. 이 반어가 만들어내는 공간은 타자와 타자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언어 속에서 일어나는 반어는 곧, 시인이 보는 세계관이며 동시에 자아를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 도구조차도 반어일 수 있다는 ‘기억할 만한 지나침’은 기형도 시의 재구축된 공간이 허구가 아닌 실재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 실재가 주는 공간은 텍스트가 만든 공간인 동시에 현실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형성은 글을 쓰는 사람에게 글쓰기 과정에서 마무리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데 효과가 있다.

### 3. 결론

지금까지 기형도 시의 자가치료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의 시에서 내적 형식과 외적 형식의 불일치는 달리,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상충점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 그가 사용했던 치료제가 일차적으로 언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 쓰기와 읽기는 시의 치료적 기능을 설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텍스트(기형도의 작품)의 자가치료적 특성 해석이 수월했던 것은 유년의 상처, 죽음, 폐쇄적 공간 등 트라우마로 대변될 수 있는 이미지군들의 응집력이 강하다는 데 있었다. 또한 이미지군들이 자기서사, 대화, 수사법 등의 고차원적인 시 창작법을 통해 공간을 재구성하고 편집하는 특

## 10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정에 기인한 것이다. 진술한 바와 같이 기형도의 시편들은 모순적인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용기인 동시에 죽음에 대한 용기일 것이다. 앞으로 자가치료적 특성이 나타난 텍스트를 찾고 분석하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2005.  
\_\_\_\_\_, 『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  
강서영, 『소설창작과 문학치료』, 문학과치료, 2008.  
김수복 편저, 『한국문학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박미라, 『치유하는 글쓰기』, 한겨레출판, 2008.  
이부영, 『그림자』, 한길사, 2006.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론』, 평민사, 2003.  
홍문표, 『현대시학』, 양문각, 1995.  
김지훈, 「정호승 시의 심리치료 활용 분석」,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7.

12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8호

Abstract

## A Study on Gi Hyeong Do's Poetry

—Focusing on its self-therapeutic characteristics

Kim, Ji Hun

Most studies on Gi Hyeong Do's poetry that have been conducted so far are focused on the wound or death in childhood. In particular, discussion on the death in his poetry has been profoundly considered along with poetic embodimen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frame of discussion on his poetry is somewhat restricted. However, they have hardly analyzed the space that the wound or death in his poems actually points to, going one step further. In other words, the space in literary works is a basic clue to find the identity of a being. The space in Gi Hyeong Do's poetry often represented as being closed employ strong paradoxes such as self in absence and death's death. Those are the good examples of showing self-therapy functions properly. In particular, a series of processes including the ability to face reality and the act of writing, not just remaining in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forgetting or avoiding implies self-therapeutic significance of poetry therapy. Jon Kabat-Zinn who developed MBSR program said, "The training of careful watching lets us recognize the wholeness that we ourselves are all connected to the universe, and this is the very way to complete treatment. The wound or death in childhood or closed space in Gi Hyeong Do's poems is the shadow within human unconsciousness. Regarding the shadow, the dark space as well as the death of unconsciousness, Sigmund Freud proposed castration theory whereas Carl Gustav Jung thought it never

goes away for one's whole life, so one has to take care of and try to be aware of the space. Thereupon, this study intends to figure out the self-therapeutic characteristics of text, that is, the process of writing a poem to get over the negative dimension of the wound or death in childhood or closed space which Gi Hyeong Do confronts in his poems.

주제어 : 기형도(Gi Hyeong Do), 문학치료(Literary Therapy), 시치료(Poetry Therapy), 자  
가치료(Self Therapy), 문학공간(literary space)